

사회

“친구같은 우리 선생님 최고”

학생·동네 주민들에 인기 ... 전경호 광주국제고 미술교사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광주 국제고등학교 전경호 미술교사가 교실에서 1학년 6반 학생들과 풍경을 그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혜태기자 choi@kwangju.co.kr

학생들에 생일카드·삼겹살 파티도

주민센터서 주부들 대상 그림 수업

구릿빛 얼굴과 단단해 보이는 몸매, 파란색 셔츠에 청바지를 즐겨입는 광주 국제고 전경호(51) 교사는 언뜻 체육교사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미술 선생님이다. 그날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지역주민들과도 그림으로 통하는 ‘친구’같은 선생님이다.

지난 1991년부터 21년째 국제고에서 근무중인 전 교사는 1994~1998년 사이 1학년 담임 교사로 활동했다. 여학생만 담임이었던 전 교사는 여학생들로부터 ‘아빠 같은 선생님’으로 불린다.

전 교사는 여학생만 담임 시절 누구보다도 여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교사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학생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했다. 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을 알아내 먼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생일에는 작은 카드에 편지를 써 주기도 했다. 그의 진심을 이해한 여학생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남학생 담임을 맡았던 2005년부터 3년 동안 전 교사는 반 학생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막고등학교가 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하루 낱을 잡아 체육대회를 열었다. 학생들과 함께 축구와 족구를 하며 운동장에 한쪽 모퉁이에 삼겹살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반 학생 40명을 근처 목욕탕으로 데려가 함께 때를 밀며 마음을 나눴다.

국제고 1학년6반 김다비(17)양은 전 교사에 대해 “너무 자상해 아빠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반 친구인 윤효빈(17)양은 “생일 땐 기념이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기도 한다”며 “작은 돈이지만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또 전 교사는 동네 주부들의 선생님이기도 하다. 6년 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수채화 교실의 강사로 무료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현재 일곡동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두차례씩 1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림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를 듣는 주부들에게 전 교사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친구’에 가깝다. 수채화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 유은화(53·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선생님이 너무 편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며 “난산이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친해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사는 학생과 빨리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학생의 눈높이에서 보고 대화해야 한다”는 ‘비결’을 전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시리얼 ‘콘푸로스트’에 22cm 쇠파이프

식약청, 3개 제품서 이물질 발견...2중 회수 나서

인기 시리얼 제품인 ‘콘푸로스트’에서 길이 20cm가 넘는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회수가 시작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산팜로푸드가 제조한 ‘스페셜K’ 등 3개 시리얼 제품에서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이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금속이 발견된 2종을 회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1.1.17’인 ‘스페셜K’(1120g) 제품 1만 1692개와 ‘2011.3.17’까지인 ‘콘푸로스트’(1500g) 500개이다.

곡성군수 후보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

허남석 후보 동생 등 2명 영장

‘곡성군수 후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허남석 예비후보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추 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 실제 규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곡성경찰은 13일 조현래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허 후보의 동생(5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 후보의 측근인 임모(50·구축)씨의 지시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허 후보의 차량에 부착한 장모(3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후보의 동생은 지난달 29일 곡성군 곡성을 허 후보의 사무실에서 임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준 뒤 허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과 함께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다.

경찰은 허 후보의 동생이 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임씨 등과 함께 허 후보에 대한 위치추적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허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허 후보의 동생은 경찰에서 “(임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불법 사실을 적발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해 임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후보의 동생은 “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풀어서 꾸민 일일 뿐 형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허 후보의 연루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곡성군수 후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허남석 예비후보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추 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사건 실제 규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곡성경찰은 13일 조현래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지시한 허 후보의 동생(52)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허 후보의 측근인 임모(50·구축)씨의 지시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허 후보의 차량에 부착한 장모(3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후보의 동생은 지난달 29일 곡성군 곡성을 허 후보의 사무실에서 임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준 뒤 허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임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공범 2명과 함께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다.

경찰은 허 후보의 동생이 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임씨 등과 함께 허 후보에 대한 위치추적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허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허 후보의 동생은 경찰에서 “(임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불법 사실을 적발하도록 부탁했다”고 진술해 임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후보의 동생은 “형의 선거를 돕기 위해 풀어서 꾸민 일일 뿐 형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허 후보의 연루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시국선언 집회 참석 공무원 무죄

법원, 특수경력직 처벌 불가

검찰, “즉각 항소할 것”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유재광 판사는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가 2009년 7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공무원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석하는데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와 제58조 1항을 적용, 기소했으나 이씨는 제8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82조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1988년 특수경력직의 하나인 화생방 요원으

로 임용된 이씨의 경우 위 처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피고인이 특수경력직이지만 다른 경력직 공무원과 ‘공모’한 부분을 법원이 간과하고 있다”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특수경력직으로 직접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경력직들의 범행에도 가담, 형법상 공범규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실적과 보장에 의해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으로 나뉘는데, 이씨는 화생방요원(별정직)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니원침 (8020) 김동주



정태서 전 회장 배임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전남대에 은행등 2억원을 기부해 교수로 초빙된 자신의 인건비로 쓰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정태서 전 광주은행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행장이 은행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증가를 관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최희경기자 choice@kwangju.co.kr

前 조폭 두목 투견도박 판돈 갈취

경기도경찰청 형사과는 12일 수도권 일대에 투견장을 개설해 투견 도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약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4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 ‘신상사파’ 두목 신모(7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 /최희경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

광주서부경찰은 13일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한 류모(34·무주)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류씨는 아내를 살해 한 뒤 11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해 오다가 이날 새벽 1시50분경 광주남부경찰 백은지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for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and price for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수강생 모집 정원 50명(15주과정) 상담 및 접수 236-34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details.